

研究論文

# 일제하 야학교재 『農民讀本』과 『大衆讀本』의 체제와 내용\*

조 정 봉\*\*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農民讀本』  | <참고문헌> |
| III. 『大衆讀本』 | <국문요약> |
| IV. 비교와 논의  |        |

## I. 서론

구한말 야학교재는 다행히 『俞吉濬全書 II』가 출판되어서 몇 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勞動夜學讀本 一』이 분석되었지만,1) 일제하 야학교재는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 선행연구들은2) 하나같이 『朝鮮農民』에 연재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109).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임연구원, 한국교육사상사 전공(jbcho@knu.ac.kr).

- 1) 李勳根, 『舊韓末 勞動夜學의 성행과 俞吉濬의 <勞動夜學讀本>』, 『斗溪李丙壽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1987), 743-778쪽; 이진호,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연구」, 『얼 므나 이응호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한샘, 1987), 567-598쪽; 김종진,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담론의 변모양상: 『노동야학독본』과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2집(2004), 57-78쪽; 배수찬, 「『勞動夜學讀本』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 지식 체계와 교재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집(2006), 599-626쪽.
- 2) 趙東杰, 「朝鮮農民社의 農民運動과 農民夜學」, 『韓國思想』, 第16輯(1978), 226쪽; 조연주, 「1920년대 야학의 교육적 처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210쪽; 金亨泰, 「日帝下 勞

이성환의 「現代農民讀本」3)과 「文盲退治用 農民讀本」4)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거나, 『나라사랑』에 실려 있는 윤봉길의 「농민독본」5) 일부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조정봉6)은 『농민독본』 상중편7)과 『노동독본』8) 원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윤봉길의 「농민독본」이 용정송옥서점의 『농민독본』과 신명균의 『노동독본』 등에서 편집하였음을 찾아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분석할 『農民讀本』9)과 『大衆讀本』10)은 1930년 4월 ‘조선농민사’가 ‘조선농민사’로부터 분리된 이후 각각의 단체가 발행한 것이다. 두 교재는 노동야학의 대표적 교재라 할 수 있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11) 연구자는 사료발굴에 큰 가치를 두면서, 두 야학교재의 서문, 목차, 내용, 편집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선농민사의 분리가 야학교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두 교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의 엄격

- 動夜學의 實態와 그 機能」,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63쪽; 金基雄, 「일제하 농민교육에 관한 일연구 3: 『朝鮮農民』誌를 중심으로」, 『新人間』, 제435~444호(1986), 32-34쪽; 李明實, 「日帝下 夜學의 民族教育에 관한 研究: 1920年代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7), 63쪽; 李河俊, 「抗日期 夜學運動과 國語教育에 關한 研究」, 『世明論叢』, 第1輯(1991), 145쪽; 崔根植, 「일제시대 야학운동의 규모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210쪽; 呂運實, 「1920年代 女子夜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46쪽; 주영훈, 「민족주의교육과 야학운동」,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편), 『民族教育의 思想史的 眺望』(集文堂, 1994), 220쪽.
- 3) 李晟煥, 『現代農民讀本』, 『朝鮮農民』(朝鮮農民社, 1925년 12월호; 1926년 1월호; 1926년 2월호), 16-23쪽, 35-40쪽, 20-24쪽.
  - 4) 李晟煥, 「文盲退治用 農民讀本」(中), 『朝鮮農民』(朝鮮農民社, 1928년 1월; 1928년 2월), 31-39쪽, 30-38쪽.
  - 5) 윤봉길, 「농민독본」 제2권; 제3권, 『나라사랑』 제25집(외솔회, 1976), 18-19쪽; 175-182쪽. 윤봉길은 1928년에 「농민독본」을 직접 손으로 적었다. 현재 원본은 덕산 총의사와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 6) 조정봉, 「일제하 야학의 교육적 실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99쪽.
  - 7) 저자 미상, 『농민독본』 上中編(龍井松屋書店, 발행년도 미상).
  - 8) 申明均, 『노동독본』 둘째권(조선교육협회, 1928).
  - 9) 李晟煥, 『農民讀本』(全朝鮮農民社, 1930).
  - 10) 金一大, 『大衆讀本』, 第一卷; 第二卷(朝鮮農民社, 1931).
  - 11) 『農民』(1930-1935)과 『노동독본』(1928) 광고에 소개되어 있는 야학교재에는 조선교육협회가 발행한 『國語讀本』, 『勞動算術』, 『漢字初步』, 『日語初學』, 『勞動理科』, 『農業初步』, 『勞動書翰』, 『唱歌辨別』, 『農家月令歌』, 『이야기주머니』와 조선농민사가 발행한 『한글讀本』, 『大衆算術』, 『大衆簡牘』, 『組合記帳法』, 『肥料製造及施用法』, 『朝鮮最近史十三講』,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勞農讀本』 등이 있다.

한 검열체제 하에 출판된 야학교재의 한계점도 지적할 것이다.

교재분석은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외적 구성은 교재 가격, 저자 약력, 발행처에 관한 것이고, 내적 구성은 서론, 목차,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교재분석의 틀은 다섯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농민을 세계인식의 주체로 보았는가? 둘째, 농민의 편에서 사회비판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셋째,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끌어내었는가? 넷째, 전통문화에 내재한 인문적 가치를 승상했는가? 다섯째,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나온 과학적 지식을 가르쳤는가? 이 연구에서는 야학교재의 내용분석에 치중하고, 당대 조선농민의 삶의 형태 변화와 야학의 교육내용 사이의 관련성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II. 『農民讀本』

### 1. 교재 체제

#### 1) 발행사항

저자는 이성환이다. 그는 함경남도 영흥 출신이며, 생몰년월일은 미상이다. 동경에 있는 일본고등잡업학교를 졸업했다. 1925년 10월 29일 ‘조선농민사’가 창립되었을 때 초대이사장이 되었다.<sup>12)</sup> 1925년부터 1926년 사이 조선농민사가 발행한 『朝鮮農民』에 「現代農民讀本」이라는 제목으로 제1과부터 제6과까지 연재했고, 1928년 「文盲退治用 農民讀本」이라는 제목으로 제1과부터 제9과까지 연재했다. 이밖에 “조선농민의 3대제창,”<sup>13)</sup> “보라! 조선농민은 눈을 찢다,”<sup>14)</sup> “농촌청년아! 사랏느냐?,”<sup>15)</sup> “농민교육의 이상과 방법”<sup>16)</sup> 등의 글이 있다.

발행처는 경성에 있는 ‘전조선농민사’이다. 전조선농민사는 1930년 4월 6일 제3차 조선농민사 전국대표대회 이후 축출된, 이성환을 비롯한 비천도교 청년당측

12) 俞賢貞, 「일제하 조선농민사 운동의 전개와 성격 변화」,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7~43쪽.  
 13) 『朝鮮農民』, 창간호(朝鮮農民社, 1925.12).  
 14) 위의 책(1926.1).  
 15) 위의 책(1926.2).  
 16) 위의 책(1926.11).

인사들이 조직하여 만든 것이다. 1931년 1월 17일 전조선농민사는 다시 ‘전조선농민조합’으로 개칭되었다.<sup>17)</sup> 이때 이성환은 교양·조사선전 부장 겸 중앙집행위원장에 추대되었다.<sup>18)</sup>

조선총독부경무국은 전조선농민사에 대해 “사회민주주의적인 강령”을 내걸고 있다고 평가했고,<sup>19)</sup> 적색농민조합운동자들은 “개량과 조합주의와 합법주의의 기생충으로 농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막는 사이비 농민단체”라고 평가했다. 1931년 말 현재 18개의 군연합회와 12,161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지만, 1932년 이후 유명 무실한 기관이 되었다.<sup>20)</sup> 초판 발행일은 1930년 6월 4일이고, 재판 발행일은 1931년 1월 25일이다. 정가는 35전이다. 평남 개천야학연맹에서는 『農民讀本』 200부를 경성에서 구입하여 각 야학에 무료로 배부하기도 하였다.<sup>21)</sup>

## 2) 목차

### (1) 구성

목차는 상편, 중편,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목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農民讀本 目次

| 上篇       |      |              |    |
|----------|------|--------------|----|
| 序 文      | 1    | 第十八課 : 허식의 탈 | 14 |
| 第一課-第十四課 | 1~10 | 第十九課 : 조흔의 폐 | 15 |

17) 盧榮澤, 「천도교 농민운동의 성과: 이성환 주도기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曉論文集』, 第47輯(1993), 56쪽.  
 18) 俞賢貞, 앞의 논문, 43쪽. 이성환은 1941년 10월 22일 친일단체 ‘조선임전보국단’ 상임이사 겸 사업부장을 맡았고, 1944년 ‘국민동원총진회’ 이사장,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상무이사, ‘국민동지회’ 간부 등을 역임하였다(김삼웅, 『친일과 100인 100문』(돌베개, 1995), 116쪽). 그리하여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인사 명단에 1번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성환의 이러한 행적은 야학교재를 편찬한 뒤 10여년이 지난 일이므로 교재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19) 1930년 12월 ‘순강대’ 활동, 1932년 2월 ‘전국대회’가 총독부에 의해 중지되었다. 또한, 1931년 2월 정평적색농민조합에 위문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池秀傑, 「朝鮮農民社의 團體生活에 관한 研究: 天道敎靑年黨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第106輯(1985), 190쪽.  
 20) 위의 논문(1985), 190쪽.  
 21) 《東亞日報》, 1931년 2월 13일.

|                    |    |                    |     |
|--------------------|----|--------------------|-----|
| 第十五課 : 양반과 농민      | 11 | 第二十課 : 자유          | 16  |
| 第十六課 : 노동신성        | 12 | 第二十一課 : 평등         | 16  |
| 第十七課 : 지혜와 권세      | 13 | 第二十二課 : 권학문        | 17  |
| 中篇                 |    |                    |     |
| 第一課 : 農民           | 1  | 第十六課 : 農村과 經濟生活(二) | 43  |
| 第二課 : 동무           | 2  | 第十七課 : 時代와 舊習      | 44  |
| 第三課 : 太陽           | 2  | 第十八課 : 民謠          | 46  |
| 第四課 : 달            | 2  | 第十九課 : 나들이가신아부지에게  | 47  |
| 第五課 : 책덕           | 2  | 第二十課 : 농민야학을 권고함   | 49  |
| 第六課 : 作物과 風土       | 27 | 第二十一課 : 規律         | 51  |
| 第七課 : 種子           | 28 | 第二十二課 : 人體生理(一)    | 52  |
| 第八課 : 肥料와 土壤       | 29 | 第二十三課 : 人體生理(二)    | 53  |
| 第九課 : 農家日記         | 32 | 第二十四課 : 人體生理(三)    | 55  |
| 第十課 : 石炭과 石油       | 34 | 第二十五課 : 朝鮮地理(一)    | 56  |
| 第十一課 : 鐵과 유리       | 35 | 第二十六課 : 朝鮮地理(二)    | 58  |
| 第十二課 : 電氣          | 37 | 第二十七課 : 朝鮮地理(三)    | 60  |
| 第十三課 : 고무          | 38 | 第二十八課 : 個人과 社會(一)  | 62  |
| 第十四課 : 都市와 田園      | 40 | 第二十九課 : 個人과 社會(二)  | 64  |
| 第十五課 : 農村과 經濟生活(一) | 42 |                    |     |
| 下篇                 |    |                    |     |
| 第一課 : 朝鮮農民         | 67 | 第十九課 : 剩餘價值        | 98  |
| 第二課 : 農民과 獨立自營     | 69 | 第二十課 : 利潤          | 99  |
| 第三課 : 農民과 共同精神     | 71 | 第二十一課 : 消費組合(一)    | 101 |
| 第四課 : 迷信           | 73 | 第二十二課 : 消費組合(二)    | 103 |
| 第五課 : 自然           | 76 | 第二十三課 : 消費組合(三)    | 104 |
| 第六課 : 資本           | 78 | 第二十四課 : 農業金融(一)    | 106 |
| 第七課 : 勞動           | 79 | 第二十五課 : 農業金融(二)    | 108 |
| 第八課 : 商品           | 80 | 第二十六課 : 丁抹의 農民     | 109 |
| 第九課 : 生産(一)        | 82 | 第二十七課 : 團體生活       | 112 |
| 第十課 : 生産(二)        | 83 | 第二十八課 : 權利와 義務     | 115 |
| 第十一課 : 消費          | 84 | 第二十九課 : 사람의 歷史     | 116 |
| 第十二課 : 貨幣          | 86 | 第三十課 : 朝鮮歷史(一)     | 118 |
| 第十三課 : 機械와 사람      | 88 | 第三十一課 : 朝鮮歷史(二)    | 119 |
| 第十四課 : 分業          | 90 | 第三十二課 : 朝鮮歷史(三)    | 121 |
| 第十五課 : 賃銀          | 92 | 第三十三課 : 朝鮮歷史(四)    | 123 |
| 第十六課 : 地稅          | 93 | 第三十四課 : 朝鮮歷史(五)    | 125 |
| 第十七課 : 利子          | 95 | 第三十五課 : 朝鮮의 新文明    | 127 |
| 第十八課 : 小作料         | 97 |                    |     |

분량은 목차가 6쪽, 서문이 4쪽, 본문이 129쪽이다. 본문은 상편이 17쪽, 중편이 50쪽, 하편이 63쪽이다. 글자는 상편 제1~21과는 한글로 되어 있고, 제22과 ‘권학문’부터는 국한문혼용이다. 편집은 田 모양으로 하여 위와 아래의 비율을 약 2대 8로 나누었는데, 위의 부분에는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한자용어를 적어놓았다.

(2) 분류

목차는 모두 86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상편이 22과, 중편이 25과, 하편이 35과이다. 이 가운데 72개 과에 제목이 붙어 있다. 제목이 붙은 목차의 내용을 먼저 주제별로 분류해본다.<sup>22)</sup>

<표 2> 목차 과의 주제별 분류

| 주제    | 인간   | 문화  | 농사  | 자연  | 경제   | 인체  | 지리  | 사회  | 역사  | 권학문 | 계   |
|-------|------|-----|-----|-----|------|-----|-----|-----|-----|-----|-----|
| 과 수   | 11   | 5.5 | 4.5 | 3   | 29.5 | 3   | 3   | 3   | 6   | 3.5 | 72  |
| 비율(%) | 15.2 | 7.6 | 6.3 | 4.2 | 41   | 4.2 | 4.2 | 4.2 | 8.3 | 4.8 | 100 |

주: 2개 주제가 중복해서 나올 경우 0.5로 계산했다.

목차에 포함된 과 수로 평가하면 『農民讀本』은 산업화로 인한 농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것이 약 41%로 가장 많고, 인간 권리가 15%,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과 계승이 8%, 조선역사가 8%, 농업기술 향상이 6.3%, 자연현상, 인체생리, 조선지리, 사회현상 등이 각각 4.2%이다. 목차의 과를 글의 종류로 다시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목차 과의 글의 종류별 분류

| 글의 종류 | 설명문  | 주장문  | 생활문 |     | 문학  |     | 계   |
|-------|------|------|-----|-----|-----|-----|-----|
|       |      |      | 편지  | 일기  | 민요  | 시조  |     |
| 과 수   | 45   | 22   | 2   | 1   | 1   | 1   | 72  |
| 비율(%) | 62.5 | 30.5 | 2.8 | 1.4 | 1.4 | 1.4 | 100 |

설명문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체 과의 약 63%이

22) 『農民讀本』 제1권 ‘이야기 한마당’에 나오는 글들은 『大衆讀本』과 비교하기 위해 문종 분류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고, 주장문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농민의 계급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약 31%를 차지한다. 생활문이 약 4%이고, 민요, 시조 등 문학이 약 3%이다.

## 2. 교재 내용

### 1) 서문

『農民讀本』에는 서문이 있다. 서문에는 교재 발행의 목적, 교사의 자격, 교육내용, 수업방식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교재발행의 목적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문맹을 퇴치하여 신조선을 건설하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農民讀本을 發行한다. 그는 朝鮮사람의 文盲을 退治하는 것이 目的이다. …첫째 勞農群衆의 文盲을 退治한다함은 新朝鮮建設의 基礎工事인 것과 둘째 이 基礎工事에는 特別한 良工을 要하는 것이 그 까닭이다.<sup>23)</sup>

교사는 기존의 학교교사가 아닌 현장경험이 풍부한 노동자와 농민이어야 하고, 교재도 노동의 현장에서 얻어야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勞農群의 힘으로 教育機關을 만들어 勞農群衆의 일터에서 教材를 캐어서 勞農群衆 속에서 教育家를 얻어서 우리 朝鮮의 가장 緊急하고도 困難한 文盲退治의 一大問題를 해결하여 보자는데에 本意가 있다.<sup>24)</sup>

교육내용은 과학적 지식과 정치적 사상에 관한 것이다.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여 농촌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하며, 사회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정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讀本에 먼저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기에 힘썼다. …첫째 朝鮮農業者가 在來에 消費하는 資本과 勞力과 時間과에 對하여 이때까지 보다 더 만코조는 收穫을 얻도록 할 일 둘째 田園生活 卽 勞農生活로 하여금 一層 더 興味

있고 健全한 것이 되도록 할 일이나…그 다음 文盲을 退治하는 同時에 政治上 智識을 養하기에 힘썼다. …비록 「우리는 압박을 실어한다」라는 問題에 反對로 「우리는 압박을 조와한다」라 하더라도 그 問題를 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討論하는 것은 가장 깊은 意味가 있는 것이다.<sup>25)</sup>

### 2) 상편

분량은 1쪽에서 17쪽까지이다. 제1과에는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나온다. 제2과부터는 단어가 나오고, 제4과부터는 문장이 나온다. ‘활용법’은 제2~5과에서 나오며, ‘연습’은 제4, 7과에서 나오며, ‘글자 모으는 법’은 제4과, 제6과, 제8~14과에서 나온다. ‘이야기 한마디’는 제16~19과에서 나온다.

제1~10과는 사회적 내용이 없는 글자나 문장이 나오고, 제11~14과 ‘글자 모으는 법’에서는 인간의 배움이 생산에 앞서고,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며, 이 세상이 잘되도록 열심히 일하자고 말한다. 제15~21과는 양반과 농민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배워서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한다. 제22과 ‘권학문’은 『古文眞寶』에 나오는 주자의 권학문을 한글로 번역해 실었다. 상편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말한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이 새로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것이다.

### 3) 중편

분량은 19쪽에서 66쪽까지이다. 제1과 ‘농민’은 농민을 소작농, 자작농, 대지주로 나누고, 대지주나 부재지주의 증가는 농정에 해롭다고 말한다. 제2과 ‘동무’는 농민의 연대를 말했고, 제3~8과는 자연과학적 지식과 농업생산기술 향상에 관한 것이며, 제9과는 5일간의 농민일기를 적었다. 제10~13과까지는 공업생산에 관한 것이고, 제14과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환경에 관한 것이다. 제15~16과는 빈부격차, 직접세, 간접세, 호세, 주세, 관세, 공채 같은 경제학적 주제를 다루었다. 제17과는 시대변화에 맞게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생활태도를 가지자는 내용이다. 제18과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민요로 엮었다. 제19과는 부모와 자식이 소작권 문제로 주고받은 편지이다. 제20과는 농민들에게 야학설립을 권장한 것이다. 제21과, 제

23) 李晟煥, 앞의 책, 2쪽.

24) 위의 책, 2쪽.

25) 위의 책, 2~3쪽.

제28과, 제29과는 사회질서와 노동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고, 제22-24과는 인간신체에 관한 것이며, 제25-27과는 국토지리에 관한 것이다. 중편은 농촌 발전을 위해 자연, 인체, 농업생산, 경제생활, 조선지리 등을 배우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농촌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설명한 것이 많다.

#### 4) 하편

분량은 67쪽에서 129쪽까지이다. 제1과 ‘조선농민’은 농민들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의 손으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학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2과 ‘농민과 독립자영’은 농민들 스스로 농촌을 살리고, 조선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3과 ‘농민과 공동정신’에서는 소작하는 농민들이 단결하여 공동경작이나 소비조합 같은 것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제4과 ‘미신’에서는 만주 땅에서 중국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조선인은 소작밖에 못하는 사정이 귀신을 잘못 만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적이 다르고, 풍속이 달라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제5과부터 제25과까지는 경제학적 내용을 다루었다. ‘수확점멸의 법칙,’ ‘잉여가치,’ ‘자본의 종류,’ ‘노동의 종류,’ ‘상품의 가치,’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지세’ 등에 관한 것이다. 제18과 ‘소작료’에서는 농민들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조합을 구성하여 지주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23과 ‘소비조합’에서는 소비조합운동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한다. 중간상인을 없애고, 직거래를 하여,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26과 ‘정말의 농민’에서는 텐마크의 성공한 농민조합운동을 소개하였다. 제27과 ‘단체생활’에서는 개인은 단체의 이름으로 자기주장을 펴야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제28과 ‘권리와 의무’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 붙어 다녀야 하지, 권리나 의무 중 한쪽만 갖는 계급이 생기는 것은 병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권리 없이 의무만 강요받으면, 여기에 저항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제29과 ‘사람의 역사’에서는 사회가 진화하는 원인을 경제적 조건에서 찾는다. 제35과 ‘조선의 신문명’에서는 남의 학설을 맹종해서도, 또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여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믿고 행하자고 말한다. 인간존재의 일반적 권리를 주장하는 상편이나, 자연, 조선지리, 농민의 경

제생활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하는 중편과는 다르게, 하편은 농민들에게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과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 세상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는 자와 죽어라 일하고도 내대 받는 계급이 있는데, 농민들이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야학에 나와 실용학문을 배우고, 농민조합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III. 『大衆讀本』

#### 1. 교재 체제

##### 1) 발행사항

김일대(金一大)가 편집겸 발행인이다.<sup>26)</sup> 그의 생몰년은 미상이다. 평안남도 안주천도교 청년당원이었고, 1926년 5월 사회주의계 사상단체인 ‘동우회(同友會)’ 창립에 참여하였다가, 곧바로 탈퇴하여 천도교 청년당계인 ‘사상연구회’를 따로 설립하였다.<sup>27)</sup> 1927년 10월 안주농민협회를 창립하였고, 1929년 4월 아나키즘을 지향한 사상단체인 ‘안주흑우회’에 참여하였다. 1928년 4월 조선농민사의 제1차 전조선대표자대회에서 중앙이사로 선출되었고,<sup>28)</sup> 1931년 4월 조선농민사 총비서겸 교양부장이 되었다.<sup>29)</sup> 1948년 3월 1일 천도교는 북한 전역에서 남북 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했는데, 이 때 김일대는 참가자 87명과 함께 평양감옥소로 압송되었고,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다시 징역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sup>30)</sup> 그가 쓴 글은 “경제적 조합운동의 실제,”<sup>31)</sup> “농민분열의 격양,”<sup>32)</sup> “단체의 5대 요소,”<sup>33)</sup> “목적의 3단

26) 朴思稷 저서인 『大衆讀本』 第1卷도 있고, 趙鐘濬·金炳淳 공편인 『大衆讀本』 第2卷도 야학교재로 발행되었다(『광고』, 『農民』, 1930).

27) 《東亞日報》, 1926년 5월 10일자; 《東亞日報》, 1926년 6월 2일자.

28) 《東亞日報》, 1928년 4월 7일자~동년 4월 8일자.

29) 池秀傑, 앞의 논문(1985), 199쪽.

30) 하종필, 『북한의 종교문화』(선인, 2003), 152쪽.

31) 『農民』(朝鮮農民社, 1930년 5월).

32) 위의 책(1930년 7월).

33) 위의 책(1930년 8월).

계,<sup>34)</sup> “조선농민사약사,<sup>35)</sup> “천도교농민운동의 이론과 실제<sup>36)</sup> 등이 있다.

발행처는 ‘조선농민사’이다. 이 교재는 1930년 비천도교 측인 이성환 등이 전조선농민사를 설립하여 조선농민사로부터 분리되어 나가자, 천도교 측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조선농민사는 전조선농민사와 분리된 이후, “당면이익 획득운동”을 벌어나갔고, 『農民』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農民』지는 1933년 12월 경영난으로 폐간되었고, 조선농민사는 1936년 4월 해체되었다. 조선농민사의 법적 지도단체였던 천도교 청년당도 1939년 4월 청년당 전당대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해산되었다.<sup>37)</sup> 제1권은 1931년 1월 31일 초판 발행했고, 1934년 12월 18일 재판 발행하였다. 제2권은 1931년 12월 18일 초판 발행했고, 1934년 12월 18일 재판 발행하였다. 제3권도 발행된 것으로 나오나,<sup>38)</sup> 실물은 구할 수 없었다.<sup>39)</sup> 정가는 제1권이 15전, 제2권 20전, 제3권 25전이다.

## 2) 목차

### (1) 구성

제1권과 제2권의 목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大衆讀本 目次

| 第一券           |      |                   |    |
|---------------|------|-------------------|----|
| 第一課~第十二       | 1~13 | 第三十九課 : 조선글(一)    | 41 |
| 第一三課 : 말모음(一) | 14   | 第四十課 : 조선글(二)     | 42 |
| 第十四課 : 말모음(二) | 14   | 第四十一課 :迷信(一)      | 43 |
| 第十五課 : 말모음(三) | 15   | 第四十二課 :迷信(二)      | 45 |
| 第十六課 : 글방물품   | 16   | 第四十三課 : 地球의 이야기   | 46 |
| 第十七課 : 달      | 17   | 第四十四課 : 朝鮮의 位置(一) | 48 |
| 第十八課 : 바람     | 18   | 第四十五課 : 朝鮮의 位置(二) | 49 |
| 第十九課 : 국화     | 19   | 第四十六課 : 朝鮮의 江山    | 50 |

|                    |    |                     |     |
|--------------------|----|---------------------|-----|
| 第二十課 : 샘(一)        | 20 | 第四十七課 : 朝鮮의 行政區域(一) | 51  |
| 第二十一課 : 샘(二)       | 20 | 第四十八課 : 朝鮮의 行政區域(二) | 52  |
| 第二十二課 : 우리집        | 20 | 第四十九課 : 港口          | 53  |
| 第二十三課 : 농구         | 21 | 第五十課 : 省墓           | 55  |
| 第二十四課 : 耳, 目, 口, 鼻 | 22 | 第五十一課 : 太陽          | 56  |
| 第二十五課 : 곡식이름       | 23 | 第五十二課 : 地球의 公自轉     | 58  |
| 第二十六課 : 부업         | 24 | 第五十三課 : 社交(一)       | 60  |
| 第二十七課 : 가을         | 25 | 第五十四課 : 社交(二)       | 62  |
| 第二十八課 : 天道敎        | 26 | 第五十五課 : 社交(三)       | 64  |
| 第二十九課 : 親族         | 28 | 第五十六課 : 白衣와 染色衣(一)  | 65  |
| 第三十課 : 三等人力車       | 29 | 第五十七課 : 白衣와 染色衣(二)  | 67  |
| 第三十一課 : 日, 月, 年    | 31 | 第五十八課 : 白衣와 染色衣(三)  | 69  |
| 第三十二課 : 四季節        | 32 | 第五十九課 : 朝鮮人の 姓(一)   | 71  |
| 第三十三課 : 번개불(電氣)    | 32 | 第六十課 : 朝鮮人の 姓(二)    | 73  |
| 第三十四課 : 電氣(二)      | 33 | 第六十一課 : 朝鮮人の 姓(三)   | 74  |
| 第三十五課 : 電氣(三)      | 35 | 第六十二課 : 空氣(一)       | 75  |
| 第三十六課 : 早婚의 弊      | 36 | 第六十三課 : 空氣(二)       | 77  |
| 第三十七課 : 婚宴의 幣      | 38 | 第六十四課 : 汽車와 汽船      | 79  |
| 第三十八課 : 葬祭禮        | 39 | 第六十五課 : 各國人の  인사方式  | 81  |
| 第二券                |    |                     |     |
| 第一課 : 農業           | 1  | 第二十五課 : 青年의 立志      | 53  |
| 第二課 : 土地           | 3  | 第二十六課 : 金融          | 55  |
| 第三課 : 農産物          | 5  | 第二十七課 : 貨幣          | 57  |
| 第四課 : 地主와 小作人      | 8  | 第二十八課 : 公債          | 60  |
| 第五課 : 肥料           | 10 | 第二十九課 : 債券          | 63  |
| 第六課 : 副業           | 12 | 第三十課 : 向上心          | 66  |
| 第七課 : 農民           | 14 | 第三十一課 : 石炭          | 68  |
| 第八課 : 勇氣와 卑怯       | 16 | 第三十二課 : 石油          | 70  |
| 第九課 : 工業           | 17 | 第三十三課 : 火車          | 71  |
| 第十課 : 資本           | 20 | 第三十四課 : 氣壓          | 72  |
| 第十一課 : 原料品         | 22 | 第三十五課 : 蒸氣          | 74  |
| 第十二課 : 機械          | 24 | 第三十六課 : 鬼神          | 77  |
| 第十三課 : 貨銀          | 26 | 第三十七課 : 飲食物가 衛生     | 80  |
| 第十四課 : 利潤          | 28 | 第三十八課 : 住宅과 衛生      | 82  |
| 第十五課 : 價格          | 30 | 第三十九課 : 衣服과 衛生      | 84  |
| 第十六課 : 勞動者         | 32 | 第四十課 : 朝鮮地理(一)      | 85  |
| 第十七課 : 神聖한 勞動      | 34 | 第四十一課 : 朝鮮地理(二)     | 88  |
| 第十八課 : 時代의 趨移      | 36 | 第四十二課 : 朝鮮地理(三)     | 91  |
| 第十九課 : 商業          | 38 | 第四十三課 : 朝鮮地理(四)     | 93  |
| 第二十課 : 貿易          | 40 | 第四十四課 : 朝鮮歷史(一)     | 96  |
| 第二十一課 : 都賣와 小賣     | 42 | 第四十五課 : 朝鮮歷史(二)     | 98  |
| 第二十二課 : 商品         | 44 | 第四十六課 : 朝鮮歷史(三)     | 101 |
| 第二十三課 : 市場과 百貨店    | 48 | 第四十七課 : 朝鮮歷史(四)     | 103 |
| 第二十四課 : 共生組合       | 50 | 第四十八課 : 朝鮮歷史(五)     | 105 |

34) 위의 책(1930년 9월).

35) 위의 책(1930년 10월).

36) 『東光』(東光社, 1931년 4월).

37) 池秀傑, 앞의 논문(1985), 205쪽.

38) 「광고」, 『農民』(朝鮮農民社, 1932년 1월).

39) 『農民讀本』의 목차 주제가 대부분 『大衆讀本』 제1, 2권에 나오고 『農民讀本』 하편 마지막이 ‘朝鮮歷史’이고, 『大衆讀本』 제2권 마지막 역시 ‘朝鮮歷史’인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충분한 비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권은 65과 84쪽이고, 제2권은 48과 107쪽이다. 제1권에는 서문이 없고, 부록이 마지막에 2페이지 나오는데, 으뜸소리와 당소리에 관한 것이다. 제목이 붙은 과는 53개 과인데, 이 가운데 한글 제목이 17개과(32%), 한자 제목이 36개과(68%)이다. 제2권은 모두 한자 제목이다. 본문은 제1권 제15과까지 한글로 되어 있고, 제16과부터 한글 옆에 괄호를 치고 한자를 적어 놓았으며, 제32과부터는 한자 옆에 괄호치고 한글을 넣었다. 제39과부터는 주요단어가 아예 한자로 나오며, 페이지 번호가 올라갈수록 한자가 많이 나온다. 편집상태는 위나 아래에 주요단어를 설명하는 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본문만 테두리 선 안에 넣어 놓았다.

(2) 분류

제목이 붙은 101개 과를 주제별로 분류해본다.

<표 5> 목차 과의 주제별 분류

| 주제   | 인간 | 문화 | 농사 | 자연 | 경제 | 인체 | 지리 | 사회 | 역사 | 한글 | 산수 | 위생 | 종교 | 계   |
|------|----|----|----|----|----|----|----|----|----|----|----|----|----|-----|
| 수(과) | 6  | 16 | 11 | 13 | 22 | 1  | 13 | 3  | 5  | 5  | 2  | 3  | 1  | 101 |

경제생활이 22%로 가장 많고, 문화, 농사, 자연, 지리가 11~16%이며, 인간, 사회, 역사, 산수, 위생, 산수, 종교 등은 1~6% 정도 이다. 목차의 과를 글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설명문은 자연, 경제, 지리, 역사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며, 전체의 62%로 가장 많다. 주장문은 인간존재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글이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문학은 자기 삶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주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전체의 약 17%가 된다.

<표 6> 목차 과의 글의 종류별 분류

| 글의 종류 | 설명문 | 주장문 | 생활문 | 문학 | 숫자 | 계   |
|-------|-----|-----|-----|----|----|-----|
| 수(과)  | 62  | 20  | 0   | 17 | 2  | 101 |

2. 교재 내용<sup>40)</sup>

제1권은 자음과 모음, 말모음, 수, 인체, 의복, 가옥, 농기구, 자연, 전통문화에 관한 내용들이다. 제28과 ‘천도교’에서는 자기홍보를 하였고, 제65과 ‘각국의 인사 방식’에서는 14개 외국의 인사문화를 소개하였다.

제2권에서는 토지, 소작인, 농산물, 공생조합 등 농업 활동, 금융, 자본, 화폐, 이윤 등 상업 활동, 기계, 석탄, 석유, 증기 등 공업 활동, 용기, 입지, 향상심, 지리, 역사 등 인문교과, 의식주 관련 위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제1과 ‘농업’에서는 농촌경제가 황폐해져 있으므로 농민들은 단체를 만들어 경제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제2과 ‘토지’에서는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게 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3과 ‘농산물’에서는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제4과 ‘지주와 소작인’에서는 토지소유제도를 비판하면서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경작권분쟁, 농민의 도시빈민화, 소작쟁의와 같은 농업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16과 ‘노동자’에서는 노동자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의 손으로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지하자원을 캐내며, 황무지를 개척한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제18과 ‘시대의 추이’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으로 보았고, 제24과 ‘공생조합’에서는 조선농민사가 생산, 소비, 신용, 위생에 관한 조합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30과 ‘향상심’에서는 청년들이 철저한 자각 아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했고, 쉽 없이 읽고 배우는 것은 인격을 향상시키려는 마음의 발동이라고 했다.

IV. 비교와 논의

1. 목차 비교

1) 「現代農民讀本」, 「文盲退治用 農民讀本」, 「농민독본」, 「農民讀本」

저자는 모두 이성환이다. 전조선농민사가 조선농민사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발행

40) 『農民讀本』에서 이미 소개된 내용들이 있고, ‘비교와 논의’에서도 일부 내용이 소개되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大衆讀本』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된(1925~1928) 『現代農民讀本』, 『文盲退治用 農民讀本』, 『농민독본』의 목차를 분리된 이후 발행된 『農民讀本』의 목차와 비교해 본다. 『現代農民讀本』에 나오는 제1과 ‘自修大學’, 제3과 ‘農奴’가 『農民讀本』에서 빠졌고, 제2과 ‘農民’과 제6과 ‘農村과 經濟生活’은 『農民讀本』 중편에 목차와 내용이 똑같이 나오며, 제4과 ‘농민과 獨立自營’과 제5과 ‘農民과 共同精神’은 『農民讀本』 하편에 목차와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文盲退治用 農民讀本』에 나오는 제6과 ‘위생과 건강’, 제9과 ‘조선 농민사’가 『農民讀本』에는 빠져 있고, 나머지 7개 과 ‘양반과 농민’, ‘노동 신성’, ‘지혜와 권세’, ‘허식의 탈’, ‘조혼의 폐’, ‘자유’, ‘평등’은 『農民讀本』 상편에 목차와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같은 저자라도, 『文盲退治用 農民讀本』은 1928년 조선농민사가 발행한 것이므로 ‘자기홍보’를 하였고, 『農民讀本』은 1930년 조선농민사와 결별한 이후 발행된 것이므로 더 이상 ‘조선농민사’를 홍보하지 않았다. 또 『農民讀本』에는 『現代農民讀本』에 있는 한두 문장을 빼거나 수정했고, 농민에 관한 통계자료가 생략되었으며, 어려운 말은 한자로 바로 적었다. 한글맞춤법에도 조금 차이가 난다.<sup>41)</sup>

참고로, 간도 용정송옥서점이 발행한 『농민독본』 상·중편은 『農民讀本』 상·중편과 목차와 내용이 똑같다. 다만 편집이 다르다. 『농민독본』은 □안에 본문을 넣었고, 『農民讀本』처럼 사각형을 이등분하여 윗부분에 한자용어를 따로 뽑아 넣지 않았다. 한글맞춤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文盲退治用 農民讀本』보다 『農民讀本』이, 『農民讀本』보다 『농민독본』이 오늘날의 한글표기법에 더 가깝다.<sup>42)</sup>

## 2) 『農民讀本』과 『大衆讀本』

『農民讀本』과 『大衆讀本』의 목차를 비교하면, 제목이 같은 과가 23개 발견된다.

- 41) 가령, ‘農民과 共同精神’을 보면, 이성환의 『農民讀本』 하편 제3과에서는 “독립적 정신이 조선을 살리는 원동력인 것과 같이 농민의 共同精神이 또한 조선을 살리는 긴요한 하나입니다”(71쪽)로 되어 있는 반면, 『現代農民讀本』 제5과에서는 “독립적 정신이 조선을 살리는 원동적인 것과 갖치 농민의 공동정신(共同精神)이 또한 도선을 살리는 긴요한 일의 하나인 줄 압니다”(32쪽)로 되어 있다.
- 42) 가령, ‘노동신성’에서 『文盲退治用 農民讀本』에서는 “일 얹어하고 먹는 자는 사회의 도적이 다”(33쪽)로 되어 있는데, 『農民讀本』 상편에는 “일 아니하고 먹는 자는 사회의 도적이 다”로 되어 있다(12~13쪽). 또, 『農民讀本』에는 “이야기 한마디. 욕심만코 어리석은 사람이 엇더케 하면 힘 아니드리고···”(12쪽)로 되어 있지만, 『농민독본』에는 “이야기 한마디. 욕심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힘 아니드리고···”(10쪽)로 되어 있다.

『大衆讀本』 제1권 제17과 ‘달’, 제33~35과 ‘전기’ 1, 2, 3, 제51과 ‘태양’, 제36과 ‘조혼의 폐’, 제2권 제7과 ‘농민’, 제31과 ‘석탄’, 제32과 ‘석유’가 『農民讀本』 중편과 제목이 같다. 『大衆讀本』 제1권 제41~42과 ‘미신’ 1, 2, 제2권 제10과 ‘자본’, 제13과 ‘임은’, 제14과 ‘이윤’, 제22과 ‘상품’, 제40~42과 ‘조선지리’ 1, 2, 3, 제44~48과 ‘조선역사’ 1, 2, 3, 4, 5가 『農民讀本』 하편과 제목이 같다.

비슷한 제목은 6개 과가 있다. 『大衆讀本』 제2권 제4과 ‘지주와 소작인’, 제5과 ‘비료’, 제12과 ‘기계’, 제17과 ‘신성한 노동’, 제24과 ‘공생조합’, 제26과 ‘금융’이 『農民讀本』에서는 ‘양반과 농민’, ‘비료와 토양’, ‘기계와 사람’, ‘노동신성’, ‘소비조합’ 1, 2, 3, ‘농업금융’ 1, 2로 되어 있다. 제목이 같거나 비슷한 과가 29개이지만, 내용까지 같은 과는 하나도 없다.

목차의 과를 주제별로는 분류하면, 『大衆讀本』은 『農民讀本』보다 경제생활에 관한 과가 약 20% 작고, 그 대신 산수, 위생, 종교에 관한 과가 추가되었다. 글의 종류별로는 설명문이나 주장문의 비율이 80~90%로 두 교재가 비슷한 반면, 『大衆讀本』에는 『農民讀本』에 나오는 편지, 일기 등 생활문이 빠지고, 대신 문학이 약 14% 더 많이 나왔다.

## 2. 내용 비교

『農民讀本』과 『大衆讀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본다.

### 1) 미신

『大衆讀本』 제1권 제41~42과 ‘미신’은 대중의 일상 생활언어로 미신의 형태를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農民讀本』 하편 제4과 ‘미신’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미신을 과학의 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면서 개인의 부와 행복은 사회사정, 정치상태, 경제형편, 국적과 민족, 지리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sup>43)</sup>

- 43) 우리나라 미신을 설명하면서 『農民讀本』이 인용한 외국은 미국 2회, 인도 2회, 만주 2회, 영국 1회, 프랑스 1회, 덴마크 1회, 독일 1회, 대만 1회, 티베트 1회로 다양했다. 『大衆讀本』은 이 과에서 외국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리치에 당치도 않는 일을 믿고 바라는 것을 迷信이라고 합니다. 迷信은 本來 野蠻部落이나 無識者의 世上에서만 流行하는 法입니다. …福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주는 것도 안이오, 독감이 주는 것도 아니오, 山神靈이 주는 것도 아니오, 성황당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오, 또는 祖上의 뼈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오직 사람사람의 自己의 努力에서 비로소 어더지는 法입니다. 병이 나면 밝은 醫員을 請해다가 診察을 받고 藥을 먹는 것이 原理입니다.44)

迷信은 科學의 敵입니다. 모든 사물에 대하여 분석하고 실험하고 비판하여 理論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科學이라하면 그와 反對로 理論을 덮어노코 神秘한 것을 믿으며 허무한 것을 믿는 것이 迷信입니다. 朝鮮에는 八字 귀신 風水 같은 迷信이 相當히 만습니다. …사람의 貧富와 壽夭와 幸不幸은 모다 그 時代와 그 나라의 社會情勢와 自然界의 影響에 잇는 것이오. 決코 八字나 귀신이나 明堂에 잇는 것이 아닙니다.45)

## 2) 비료

『大衆讀本』 제2권 제5과 ‘비료’는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농민이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알려주었다. 『農民讀本』 중편 제8과 ‘비료와 토양’은 농민의 행동보다는 비료와 토양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었다.46)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肥料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박토가 되어서 農作物의 좋은 結果를 얻기 어렵습니다. 肥料을 주는데는 作物의 種類를 따라서 그 작물에 適當한 양분을 도아주지 아니 하면 아니 됩니다. 앞사귀를 키우어야 할 作物에는…열매를 키우어야 할 作物에는…줄기를 키우어야 할 作物에는…肥料을 주는데 特別히 主意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47)

近來의 農業은 과는 것을 目的하는 商品生産임으로 收入과 生産費가 맞아

합니다. …農家에서는 될 수 잇는대로 金비를 사 쓰지 말고 自己집에서 만드려 써야 합니다. …우리의 農事것은 이 흙은 우리의 몇 만대 先祖로부터 사러왔고 또 將來에도 몇 억만대를 子子孫孫이 사러갈 끝임으로 비록 瘠치 못한 흙이라도 박대하지 말고 잘 사랑하며 잘 改良해야 그 生産하는 힘이 소모되지 안케 하여야 합니다.48)

## 3) 기계

『大衆讀本』 제2권 제12과 ‘기계’는 기계화의 이득이 자본가에게 쏠려있다고 지적하였고, 『農民讀本』 하편 제13과 ‘기계와 사람’에서는 기계를 보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기계가 노동자 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하나는 사상과 학술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오늘날 機械는 社會化하지 못하고 오직 榮利機關의 한구석에서 資本家의 利潤獲得에 利用되어 잇으며 더욱 機械가 農業生産에 普及되지 못한 것은 資本主義文明의 弊害라고 합니다.49)

엇던 사람은 機械는 사람의 勞動을 빼앗아서 못사는 사람이 만하지고 物慾을 자리워서 人生을 墮落케해야 生活을 不完全케 하고 社會를 不健全케 한다 하고 또 엇던 사람은 機械는 사람의 勞動을 節約해야 生産을 增進시키고 學術을 發達시키고 思想을 啓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50)

## 4) 임은

『大衆讀本』 제2권 제13과 ‘임은’은 한강의 모래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노동력이 들어가서 경성이나 인천으로 옮겨놓았을 때 상품이 되고, 이때 임은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農民讀本』 하편 제15과 ‘임은’은 같은 노동력이라도 사회의 문화정도에 따라 임은에 차이가 있고, 생활보장을 위해 임은을 더 받으려는 사상이 나날이 깊어져간다고 설명했다.

44)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44~46쪽.

45) 李晟煥, 앞의 책, 73~76쪽

46) 비료의 구성요소(질소, 인산, 가리), 거름의 종류(직접과 간접, 뼈름과 느림), 토양의 종류(표토, 저토), 토양을 가꾸는 이유와 태도 등을 교훈조로 알려주었다.

47)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10~11쪽.

48) 李晟煥, 앞의 책, 31~32쪽.

49)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24~25쪽.

50) 李晟煥, 앞의 책, 89쪽.

勞動力이 전혀 들지 않은 物品에는 價格이 없고 따라서 商品이 되지 못합니다. 漢江가에 그냥 잇는 모래는 값이 없고 또 商品도 되지 못하니 그것은 아모런 勞動力이 들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모래를 京城이나 仁川으로 옮기어 가면 값이 생기나니 그것은 그 모래가 位置를 變更할 때에 그만큼 勞動力이 들게 됨으로 씁입니다.<sup>51)</sup>

勞動力의 價格으로 決定되는 賃銀은 그 社會의 文化정도를 따라 높고 낮고 합니다. 文化정도가 높은 나라의 勞動者의 살림사리는 文化정도가 낮은 나라의 勞動者보다 생활자료가 더 많이 들게됨으로 勞動賃銀도 많이 받지 아니면 안 됩니다.<sup>52)</sup>

### 5) 농민조합

『大衆讀本』 제2권 제24과 ‘공생조합’은 자기조직인 조선농민사의 공생조합을 소개하고 홍보한 반면, 『農民讀本』 하편 제21~23과 ‘소비조합’은 조선농민의 구체적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sup>53)</sup>

民衆의 不安全 經濟生活을 解決할 對策으로 共生組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共生組合은 朝鮮農民社의 經濟運動機關이며 그 組織은 農民社員을 構成員으로 하고 일어진 것이외다. 共生組合에는 消費部, 生産部, 信用部, 利用部, 衛生部가 있습니다.<sup>54)</sup>

勞動組合運動은 資本階級과 對抗함에 잇서서 그 本質上으로 보아 여러 종류의 無産階級을 한일산 아래에 모이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잇스나 消費組合運動은 職業 또는 産業別을 論할 것 업시 그 利害는 모든 無産階級에 共通하는 것임으로 運用을 잘하기만 하면 社會改造에 有力한 手段이 된다고 까지 었던 사

51)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26~27쪽.

52) 李晟煥, 앞의 책, 93쪽.

53)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은 민중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획득을 위한 것이 되었는데, 중간상인들의 손넉김으로 상품가격이 더 올라갔고, 광고료와 점포장식비가 상품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으니, 노동조합이나 소비조합 운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물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4)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52쪽.

람은 말하였다.<sup>55)</sup>

### 6) 조선역사

『大衆讀本』 제2권 제44~48과와 『農民讀本』 하편 제31~34과의 ‘조선역사’는 다루는 시기와 지역이 서로 일치하고, 내용에 같은 인물과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 시기는 단군에서 대한제국 멸망까지이고, 지역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포함하였으며, 등장인물은 고주몽, 온조, 박혁거세, 을지문덕, 양만춘, 김유신, 이순신, 묘청, 김부식, 최영, 정몽주 등이다. 문화재는 황룡사, 첨성대, 팔만대장경 등이 나온다.

하지만, 『大衆讀本』은 『農民讀本』에 나오지 않는 홍경래, 인내천사상, 최수운, 동학, 전봉준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農民讀本』은 『大衆讀本』에 나오지 않는 발해를 다루고 있고,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조시대로 불렀다. 또, 일본의 명치유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조선을 이조시대라고 불렀다.

純祖때에는 關西人 洪景來가…亂을 起하여 革命運動을 實現하려다가…哲宗 때에 慶尙道 一隅에서 人乃天眞理와 保國安民, 布德天下, 廣濟蒼生의 目的을 가지고 崔水雲이 東學을 創建하여…高宗 때에 金玉均 등이 閔氏의 守舊黨을 排除하고 國政을 改革하여 一時의 維新運動을 일으키었으나…甲午三月에 全瑋準이 保國安民의 旗幟를 들고 全羅, 忠淸, 慶尙三道에 蜂起하여 結局 日淸戰爭을 일으키어 東洋에 一大風雲이 일어났습니다.<sup>56)</sup>

一部는 海를 渡하여 倭國部落의 酋長이 된 天日槍이 잇섯다…日本에서는 明治維新이 되어 三百年甘夢에 醉하였던 德川幕府가 깨어지고 中央集權이 된後 資本主義文化 輸入에 汲汲하였스며…日本은 日淸 日露의 兩戰役을 치른後 庚戌年에 朝鮮을 併呑하였스니 이동안을 李朝時代라 한다. 李朝時代에는…郷土兩班의 常民壓迫도 甚하여 社會的으로 封建主義는 完成하였다.<sup>57)</sup>

55) 李晟煥, 앞의 책, 105쪽.

56)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104~105쪽.

57) 李晟煥, 앞의 책, 126쪽.

전반적으로, 『農民讀本』은 정교한 언어와 과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지만, 『大衆讀本』만큼 그 곳에 사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 3. 논의

두 교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두 교재는 농민을 세계인식의 주체이자 사회변혁의 중심으로 보았다. 이 점이 유길준의 『勞動夜學讀本 一』<sup>58)</sup>과 다른 점이다. 민중의 자각으로 권세자들이 만든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고, 농민이 조선의 주인공이라고 했으며, 농민이 중심이 되는 문학, 예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둘째, 두 교재는 농민의 편에서 양반, 지주, 자본가의 행태를 비판했으며, 지주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者는 神聖을 汚瀆하는 者요 勞動價値를 詐欺하는 者는 社會의 盜賊입니다.”<sup>59)</sup> “조합을 만들어 지주에게 단체로 대항해야 한다.”<sup>60)</sup>

셋째, 두 교재는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끌어냈다. 『農民讀本』은 서론에서 농민들의 노동 일터에서 교재를 구성한다고 했고, 교재내용은 토지소유, 농업생산량 증대,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농민야학, 소비조합 등에 관한 것이었다. 『大衆讀本』도 농민 삶의 경제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 자존심을 세우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두 교재는 조흔, 허례허식, 구습, 미신, 귀신을 비판한 반면, 설날, 한가위, 단오, 보름, 복날 등 전통적인 명절을 자세히 소개했고, 한글의 우수함을 자랑스럽게 말했으며, 조선실정에 맞는 사상과 학설을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두 교재는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나온 과학적 지식을 가르쳤다. 『農民讀本』은 서론에서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기에 힘썼다”고 밝혔고, 『大衆讀本』은 ‘태양’, ‘지구의 공자전’, ‘전기’, ‘기압’, ‘공기’ 등에서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르쳤다.

58) 俞吉濬, 『勞動夜學讀本 一』(京城, 1908).

59) 金一大, 앞의 책, 第二卷, 36쪽.

60) 李晟煥, 앞의 책, 98쪽.

## V. 결론

이 글에서 분석된 이성환의 『農民讀本』과 김일대의 『大衆讀本』은 1930년 4월 비천도교 계열의 전조선농민사가 천도교 계열의 조선농민사로부터 분리된 이후, 각각의 단체들이 발행한 야학교재이다. 이때 전조선농민사는 『朝鮮農民』에 연재된 「現代農民讀本」과 「文盲退治用 農民讀本」을 『農民讀本』이라는 책으로 다시 발행하였기 때문에, 조선농민사는 『大衆讀本』이라는 교재를 새로 발행하였다. 두 교재는 목차와 분량에 차이가 있는데, 『農民讀本』 상·중·하편을 모으면 86개과 129쪽인데 반해, 『大衆讀本』 제1권과 제2권을 합하면, 113개과 191쪽이다. 『大衆讀本』이 『農民讀本』보다 목차와 본문내용이 약 1.5배 더 많다.

『農民讀本』과 『大衆讀本』이 다른 주제는 주로 인간권리, 자연현상, 농사, 산업화, 경제생활, 지주억압, 농민조합, 조선지리, 조선역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두 교재는 노동자·농민을 세계인식의 주체이자 사회발전의 주인공으로 본 점은 서로 일치하였지만, 각 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大衆讀本』에는 『農民讀本』에 없는 산수, 위생, 자기홍보에 관한 과가 들어 있었다. 홍보는 천도교와 조선농민사에 관한 것이었다. 『大衆讀本』이 농민의 삶터에서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었고, 농민의 삶의 고통에 공감한 반면, 『農民讀本』은 전문적 언어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객관적이며 균형 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엘리트의 ‘관념적 사랑’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도 있었다.<sup>61)</sup>

두 교재는 봉건지주의 억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일제의 농촌경제 침략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農民讀本』의 저자인 이성환이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김일대의 『大衆讀本』 역시 일제의 침략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sup>62)</sup> 일제 당국의 살벌한 감시와 검열을 의식한 탓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교재는 우리 사회의 여성 차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農民讀本』에 시집살이의 고통을 노래한 ‘민요’ 한 과가 들어있고, 『大衆

61) 서론에서 농민들에게 정치적 관념을 주입하겠다고 밝혔고,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보잘 것 없는 농촌생활이라고 실망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고 거듭 당부했다(7쪽).

62) 조선교육협회가 발행한 「노동독본」(1928)과 용정송옥서점이 발행한 「농민독본」(발행연도 미상)에서도 일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讀本』에서 “우리 조선에서는 이 한옷 때문에 女子들의 공부할 時間이 없서지는 것이 가장 큰 損害입니다”<sup>63)</sup>라고 한 것이 전부이다.

연구자는 교재를 통해 야학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당대 그 곳의 정치경제적인 조건 하에서 단위 야학별로 그 교재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은 더 많은 사료발굴에서 시작해야 할 후속과제로 돌린다.

### 참고문헌

金基雄, 「일제하 농민교육에 관한 일연구 3: 『朝鮮農民』誌를 중심으로. 『新人間』 第437號, 1986, 32~34쪽.

金一大, 『大衆讀本』 第一卷; 第二卷. 경성: 朝鮮農民社, 1931.

김삼웅, 『친일과 100인 100문』. 서울: 돌베개, 1995.

김종진,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담론의 변모양상: 『노동야학독본』과 『중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2집, 2004, 57~78쪽.

金亨泰, 「日帝下 勞動夜學의 實態와 그 機能」.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盧榮澤, 「천도교 농민운동의 성과: 이성환 주도기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曉大論文集』 第47輯, 1993, 47~62쪽.

발행자불명, 『東光』. 발행지불명: 東光社, 1931년 4월, 韓國學文獻研究所(편), 『東光』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배수찬, 「『勞動夜學讀本』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연구: 지식 체제와 교재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집, 2006, 599~626쪽.

申明均, 『노동독본』 둘째권. 京城: 조선교육협회, 1928.

俞吉濬, 『勞動夜學讀本 一』, 京城: 京城日報社, 1908.

윤봉길, 「농민독본」 제2권; 제3권. 『나라사랑』 제25집, 서울: 외솔회, 1976, 18~19쪽; 175~182쪽.

呂運實, 「1920年代 女子夜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俞賢貞, 「일제하 조선농민사 운동의 전개와 성격 변화」.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李明實, 「日帝下 夜學의 民族教育에 관한 研究: 1920年代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63) 金一大, 앞의 책, 第一卷, 69쪽.

문, 1987.

李晟煥, 「現代農民讀本」. 『朝鮮農民』. 京城: 朝鮮農民社, 1925년 12월; 1926년 1월; 1926년 2월, 16~23쪽; 35~40쪽; 20~24쪽, 『朝鮮農民』 <影印本>. 서울: 보성사, 1977.

李晟煥, 「文盲退治用 農民讀本」中. 『朝鮮農民』. 京城: 朝鮮農民社, 1928년 1월; 1928년 2월, 31~39쪽; 30~38쪽, 『朝鮮農民』 <影印本>. 서울: 보성사, 1977.

李晟煥, 『農民讀本』. 京城: 全朝鮮農民社, 1930.

이진호,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연구」. 『열 므나 이응호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한샘, 1987, 567~598쪽.

李河俊, 「抗日期 夜學運動과 國語教育에 關한 研究」. 『世明論叢』 第1輯, 1991, 131~151쪽.

李勳相, 「舊韓末 勞動夜學의 成行과 俞吉濬의 『勞動夜學讀本』」.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743~778쪽.

저자미상, 『농민독본』 上中編. 龍井: 龍井松屋書店, 발행연도 미상.

趙東杰, 「朝鮮農民社의 農民運動과 農民夜學」. 『韓國思想』 第16輯, 1978, 147~72쪽.

조연주, 「1920년대 야학의 교육적 지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조정봉, 「일제하 야학의 교육적 실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주영홍, 「민족주의교육과 야학운동」.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편), 『民族教育의 思想史의 眺望』. 서울: 集文堂, 1994, 205~224쪽.

池秀傑, 「朝鮮農民社의 團體生活에 關한 研究: 天道教青年黨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第106輯, 1985, 169~207쪽.

崔根植, 「일제시대 야학운동의 규모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하종필, 『북한의 종교문화』. 서울: 선인, 2003.

### 국문 요약

이성환의 『農民讀本』과 김일대의 『大衆讀本』은 1930년 4월 천도교 계열의 조선농민사와 비천도교 계열의 전조선농민사가 분리된 이후 발행된 것이다. 이 두 야학교재는 주로 인간의 권리, 자연현상, 농사, 산업화, 경제부흥, 억압과 착취 등을 다루었다. 두 교재는 농민을 세계인식의 주체로 파악했고, 농민의 편에서 사회비판적 발언을 했으며, 농민의 삶의 현장에서 배움과 교육적 실천을 이끌어냈다. 또한, 두 교재는 전통문화를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인문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두 교재는 지주의 억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일제의 식민지배와 조선의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야학(Yahak), 이성환(Lee Seong Hwan), 김일대(Kim Il Dae),  
농민독본(『農民讀本』, *Nongmin Dokbon*), 대중독본(『大衆讀本』, *Daejung Dokbon*).